

19세기 조선 왕실 여성의 머리모양

이 은 주

안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Royal Ladies' Hair Styles of *Joseon* Dynasty in the 19th Century

Eun-Joo Lee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Andong National University

(2007. 10. 9 투고)

ABSTRACT

Hair style of royal ladies in the 19th century according to the wedding record of King *Heon-Jong* and Lady *Sunhwagung* is studied in this paper and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aengmeori* was a bridal hair style for the wedding night in *Gyeonmagi*(jacket) and *Daeranchima*(Skirt with gold trimming). It was a typical girls' hair style before the coming-of-age ceremony. It was composed of *Saengmeoridari*(wig), *Seockunghwang*, *Jogduri*(Coronet decorated with Jewellery), *Saengdaeng-gi*(hair ribbon) trimmed pearls, and jade disk trimmed pearls.

Second, *Garaemeori*(double bun hair style) was the hair style with *Wonsam* when the chosen bride went to *Byeol-Gung*, a special palace for the bridal. It was composed of *Gareachi*(wig) and *Cheopji*(small wig) with the frontal hair ornament, *Jogduri*, and *Saidang-gi*(hair ribbon).

Third, *Jojimmeori*(single bun hair style) is a basic hair style for the madame. It was composed of *Jojimmeorichilbo*, *Jogduri*, *Jojimmeoridari*(wig), and *Cheopji* with a frontal hair ornament.

Fourth, *Keunmeori* is the second most important hair style for the court ceremony. It was composed of *Eoyeonjogduri*, *Eoyeomdari*(wig), *Cheopji* with a frontal hair ornament, *Keunmeoridari*(wig), and *Keunmeorichilbo*.

Fifth, *Susik*, the most important hair style for the court ceremony, is the hair style for ceremonies including the day of becoming the formal queen, the first greeting day to the King's family. It was composed of 4 kinds of wigs and *Susik-chilbo*.

Key words: *Joseon* dynasty(조선시대), wedding ceremony(가례), hair style(머리모양), king *Heon-Jong*(헌종), lady *Sunhwagung*(순화궁), royal family(왕실)

I. 머리말

18세기 조선에서는 여성의 커다란 가če(加髻)에 의한 사치풍조가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인식되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규제가 내려지기에 이르렀는데 영조(英祖) 32년(1756) 병자년에는 부녀자들의 가če를 금하는 대신 궁양(宮樣)인 족두리(簪頭里)를 사용하도록 하는 명(命)이 내려졌다.¹⁾ 8년 뒤인 영조 39년(1763)에는 족두리의 사치가 심해짐에 따라 다시 본래의 제도로 환원되었으나²⁾ 정조 12년(1788) 무신년에 비변사(備邊司)에서 다시 「가체신금절목(加髻申禁節目)」을 올려 사족(士族) 부인들이 머리를 땡아 엷는 것을 금하도록 하였다. 친한 신분의 여자들에 한해서는 본인의 머리[本髮]로 엷는 것을 허락하였지만 반가 부인들의 경우, 처녀의 머리모양인 낭자머리[娘子雙髻]와 사양머리[絲陽髻]를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머리를 땡아 머리 뒤에 엷고 족두리를 사용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혼례에 한해서는 명부들의 어유미(於由味)와 거두미(巨頭味)를 서인(庶人)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³⁾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선 후기 반가(班家) 여성의 평상시 머리모양은 쪽머리[北髻·後髻]로 정착되었다.

영·정조대 이후 변화되기 시작하여 순조대에 정착되기에 이른 반가 부녀자들의 쪽머리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으나 상대적으로 왕실 여성들의 머리모양에 대해서는 말기의 것만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말기 자료란 대부분 낙선재 상궁들에 의해 알려진 것인데 그보다 앞선 시대의 머리모양에 대해서는 말기의 것과 유사하였을 것으로 유추하는 정도였다. 왕실 여성의 머리모양에 대한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1847년 헌종(憲宗)과 경빈 김씨(慶嬪 金氏, ?-1907)의 가례(嘉禮) 기록인 『덩미가례시일기』(장서각 소장)는 왕실의 가례 문화를 새롭게 검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주제인 가례 절차에 따른 왕실 여성의 머리모양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담고 있어

주목된다.

이 연구에서는 『덩미가례시일기』를 비롯한 유사 관련 기록과 유물자료를 토대로 19세기 왕실 여성들의 머리모양을 고찰함으로써 조선후기 궁중 복식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왕실 복식 고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가례 절차에 따른 왕실 여성의 머리모양

1. 『덩미가례시일기』와 관련 자료

순화궁은 헌종의 후궁인 경빈김씨의 궁호(宮號)이다. 주부(主簿) 김재청(金在淸)의 딸로서, 후궁이기는 하지만 왕에게 아들이 없어서 다시 정식으로 결혼하여 맞이한 특별한 부인이었다. 헌종은 조선의 왕으로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부 간택에 참여하였던 왕으로 유명하다. 그 때 낙선된 처녀들 중에 순화궁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헌종은 당시 간택된 계비(繼妃) 홍씨보다는 오히려 낙선된 순화궁에게 더 관심이 있었다⁴⁾고 한다.

1847년 헌종과 순화궁의 가례 내용을 기록한 자료로는 장서각 소장의 한글본 『덩미가례시일기』(이하 『덩미』로 표기)와 유사본 『정미피물가례일기』(이하 『정미』로 표기)⁵⁾가 있다. 그리고 거의 동일한 내용을 한문으로 기록한 규장각 소장의 『헌종경빈김씨순화궁가례시절차(憲宗慶嬪金氏順和宮嘉禮時節次)』(이하 『절차』로 표기)⁶⁾가 있는데 특히 이 자료는 한문 위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한글로만 기록되어 있는 장서각본 『덩미』와 『정미』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이들 자료는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에서는 볼 수 없는 실질적인 물목들을 담고 있어 가례 연구와 국어사 연구⁷⁾에는 물론, 복식사 연구에 대단히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외에도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에는 『순화궁접초[順和宮帖草]』가 소장되어 있다. 이 자료는 책처럼 접어 배접한 책 형식의 발기[件記]로, 「스절복식조장요람」과 「국곡복식소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시 순화궁의 평상시 옷차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어서⁸⁾ 역시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이상의 자료들은 19세기 머리모양을 비롯하여 왕실의 복식문화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2. 가례 절차에 따른 머리모양과 복식의 변화

장서각 소장본 『당미』와 규장각 소장본 『절차』를 통해 1847년 경빈깁씨 순화궁의 가례 절차에 따른 머리모양과 복식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삼간택(三揀擇) 세수 후 머리모양과 복식

장서각 소장본 『당미』⁹⁾에 의하면 순화궁의 삼간택은 1847년 10월 18일에 통명전에서 치러졌다. 삼간택을 마치고 세수(洗漱)한 후에 이극문(貳極門)을 통해 별궁으로 이동하였는데 이 때 순화궁은 '초록금수복자원삼(草綠金壽福字元衫)'에 'ㄱ라마리'를 하였다. 'ㄱ라마리'는 '가리머리'¹⁰⁾, 즉 '가래머리'를 말한다.

2) 책빈일(冊嬪日)의 머리모양과 복식

삼간택 다음 날인 10월 19일 책빈의(冊嬪儀)에서 순화궁은 '수식(首飾)'에 '직금원삼(元衫)'을 입고 패옥(珮玉)과 수정대(水晶帶)를 띠었으며 청옥규(靑玉圭)를 들었다. 왕비의 책비의(冊妃儀)에서는 수식에 적의(翟衣)를 착용¹¹⁾하지만 순화궁은 수식에 직금원삼을 착용하였다. 빈(嬪)의 신분임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첫 절차이므로 빈의 신분에 따른 최고의 성장을 한 것이다.

3) 가례일 입궐 때의 머리모양과 복식

가례일은 책빈일로부터 이틀 뒤인 10월 21일이었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납비의(納妃儀)」에 따르면 왕비는 '적의'와 '수식'에 '경(景)'을 덧입고 입궁한다.¹²⁾ 그러나 『당미』에 의하면 경빈깁씨 순화궁은 '가라마리'에 '노의(露衣)'와 '봉대(鳳帶)' 차림으로 입궐하였음¹³⁾을 알 수 있다.

4) 동뢰연 때의 머리모양과 복식

10월 21일 입궐 후 당일 통명전에서 동뢰연(同牽

宴)이 치러졌다. 동뢰연은 신랑과 신부가 신혼의 교배(交拜) 의식을 마치고 술잔을 나누는 의례¹⁴⁾인데 왕비의 동뢰연에서는 국왕이 읊하고 왕비를 인도하고 동서로 마주 대하지만 빈의 동뢰연에서는 자리가 남북으로 배열되었으며 빈의 일방적인 사배(四拜)로 위계적 차이를 보인다.¹⁵⁾ 동뢰연의 복식도 왕비의 경우는 적의(翟衣)를 착용하지만¹⁶⁾ 순화궁은 '수식'에 '직금홍장삼(織金紅長衫)'을 입고 패옥과 수정대, 청옥규를 갖추었다.

5) 초일(初日) 야담상(夜談床) 받을 때의 머리모양과 복식

가례 첫날 야담상을 받을 때 왕 헌종은 '두면(頭冕, 갓)'과 '창의(釐衣)'를 입고 순화궁은 '스양·스양의(생머리)'에 '금수복자견마기[金壽福字肩莫只]'와 '대란치마[大襪裳]'를 입었다.

6) 조현례 시 머리모양과 복식

가례 다음날인 10월 22일 통명전에서 조현례(朝見禮)가 치러졌다. 조현례는 비(妃), 빈(嬪)이 새롭게 간택되어 가례를 마친 후 부왕(父上)과 모비(母妃) 등을 뵈는 예식¹⁷⁾으로 반가의 혼례에서는 현구고례(見舅姑禮)에 해당되는 의례이다. 순화궁은 시조모 대왕대비(순조비 순헌왕후)와 시모인 왕대비 조씨(익종비 신정왕후), 중궁전(헌종비 효정왕후)에 조현례를 올렸는데¹⁸⁾ 이 때 '수식'에 '직금원삼', '패옥', '수정대', '청옥규'를 갖추었다. 이는 책빈일과 동일한 최고의 성장 차림이다.

7) 조현례 후 초일(初日) 문안의 머리모양과 복식

조현례 후 첫날 옷전에 문안 인사를 드릴 때는 'ㄱ라마리'에 '금수복자불(金壽福字黻)'을 착용하였다. 'ㄱ라머리'는 삼간택 후 별궁으로 갈 때 초록금수복자원삼 차림의 머리모양이었으며 가례 당일에 별궁에서 통명전으로 들어올 때 노의 차림에도 이 머리모양을 하였다.

한편 '금수복자불'의 '불'은 '~벌'과 같은 개념으로, 통상적으로 착용하는 상의와 하의 1습(襲)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수복자불'이라 함은 금수복자당

의에 치마를 입는 것인데 금수복자당의는 순화궁이 동지 문안에 입었던 옷이기도 하다. 동지문안에 '초록금수복자당저고리'에 '대란치마'와 '비단옷치마'를 입는다¹⁹⁾고 기록되어 있으니 조현례 후 초일 문안의 '금수복자불'도 이와 같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8) 관례 때의 머리모양과 복식

순화궁의 관례는 동퇴연을 치르고 거의 1달 후인 11월 17일²⁰⁾에 통명전(通明殿)에서 치러졌다. 초가(初加)에는 원삼을 입고 '수식'이라는 머리를 하였으며 재가(再加)에는 원삼에 '광식'이라는 머리를 하였다. 그리고 삼가에는 원삼에 '큰머리[大頭里]'를 하였다. 즉 관례에는 초가부터 삼가까지 세 차례 모두 원삼을 착용하면서 머리모양만 수식-광식-큰머리 순으로 변화되었다.

수식과 큰머리는 흔히 거론되는 궁중용 머리모양인 것에 반하여 재가에 사용된 '광식'이라는 머리모양은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생소한 것이다. 광식은 당시의 조짐머리로 판단되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서각에 남아있는 「관례시광식호은불기」에는 '다리 2단과 광식첩지, 흑각반혀 대중소, 남자두 1부' 등²¹⁾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록에서 '첩지'와 '남자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첩지는 쪽머리에 흔히 사용하였던 부속품이며 남자두²²⁾ 역시 부인들의 쪽머리를 더 크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가발의 일종이다. 19세기 초 『거가잡복고(居家雜服攷)』는 19세기 초 부인들이 뇌(腦) 뒤에다 변체(辮髻)하는 머리를 '남자두(娘子頭)'라고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남자두는 본래 궁인의 평상시 머리모양으로 뇌 뒤에 작은 체변을 가하도록 한 것인데 작던 체가 점차 커져서 결국 옛날에 머리에 이고 있던 것을 지금은 목과 어깨에 지고 있으니 그 폐단은 여전하다²³⁾고 남자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쪽머리에 가발을 더한 머리모양이 '남자두'인데 그 머리모양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가발 역시 '남자두'라고 한 것이다. 광식에 첩지와 가발 남자두가 사용되고 있으니 결국 '광식'은 첩지를 한 조짐머리로 귀결된다.

둘째, 관례를 위해 마련된 머리장식품으로도 광식

이 조짐머리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당미』 기록에 의하면 관례를 위해 '큰머리칠보'와 '도짐칠보(조짐칠보)'가 마련되었다.²⁴⁾ 초가의 머리모양인 수식에 사용될 수식칠보는 이미 별궁으로 갈 때 준비되었으므로²⁵⁾ 관례용으로 다시 준비되지 않은 듯하다. 그렇다면 초가의 수식에는 별궁 갈 때 마련되었던 수식칠보를 사용하고, 삼가의 큰머리에는 관례용으로 마련된 큰머리칠보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관례용으로 마련된 칠보 중 큰머리칠보를 제외하면 조짐칠보만 남게 되는데 그렇다면 조짐칠보는 마지막 남은 광식에 사용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근거에서 볼 때, '광식'에 첩지와 조짐머리용 체발인 남자두가 더해지고 그 위에 조짐칠보가 가해졌으므로 광식을 조짐머리로 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재가에 광식, 즉 조짐머리를 하는 이유는 비·빈의 일상적인 머리모양이면서 관례를 치룬 부인임을 나타내는 상징물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왕실 여성의 관례에는 수식과 조짐머리, 큰머리 모양이 사용되었는데 그 중 최고의 성장용 머리인 수식은 관례 후에만 사용하는 조짐머리나 큰머리와는 달리, 관례 후에는 물론, 관례 전에도 사용되었던 머리모양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가례 절차에서 사용된 머리모양과 복식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가례와 관련된 10단계의 절차 중 수식이 네 차례 사용되었으며 가래머리가 세 차례, 생머리와 광식, 큰머리가 각각 한 차례씩 사용되었다. 따라서 19세기 순화궁의 가례에는 관례와는 무관하게 최고의 성장용 머리로 수식이 사용되었으며 관례 전에는 생머리와 가래머리가, 그리고 관례 후에는 광식, 즉 조짐머리와 큰머리가 사용되었던 것으로 정리된다.

Ⅲ. 머리모양별 형태와 용도, 그리고 장식품

<표 1>에서 정리된 순화궁 경빈김씨의 다섯 가지 머리모양의 형태와 용도, 그리고 장식품들을 관례 전 머리모양에서부터 성장(盛裝)의 정도에 따른 순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정미년(1847) 가례 절차에 따른 경빈김씨의 머리모양과 복식의 변화

일시 (1847)	절차	『당미』(장서각)		『절차』(규장각)		
		복식	머리모양	머리모양	복식	
10. 8.	삼간택 세수 후 별궁갈 때	초록금수복즈원삼	ㄱㄹ마리	가ㄹ마리	草綠金壽福字元衫	
10. 19	책빈일	직금원삼·패옥·슈정다· 청옥규	슈식	首飾	織金元衫·珮玉·水晶帶· 靑玉圭	
10. 21.	가례일 입궐 시	노의·봉디	ㄱㄹ마리	ㄱㄹ마리	露衣·鳳帶	
10. 21	동리연	직금홍장삼·패옥·슈정다· 청옥규	슈식	首飾	織金紅長衫·珮玉·水晶帶· 靑玉圭	
10. 21	야담상 받을 때	금수복즈견마기·대란치마	스양의	스양의	金壽福字肩莫只·大襪裳	
10. 22	조현례	직금원삼·패옥·슈정다· 청옥규	슈식	首飾	織金元衫·珮玉·水晶帶· 靑玉圭	
10. 23	조현례 후 초일 문안	금수복즈불	ㄱㄹ마리	ㄱㄹ마리	金壽福字敝	
11. 17.	관례	초가	원삼	슈식	首飾	元衫
		재가	원삼	광식	광식	元衫
		삼가	원삼·봉디	큰마리	大頭里	元衫·鳳帶

1. 생머리

1) 생머리의 형태와 용도

순화궁은 동리연을 치른 날 저녁에 헌종과 함께 야담상을 받았는데 이 때 견마기와 대란치마 차림에 생머리를 하였다. 당시 순화궁은 가례를 치르기는 했지만 아직 관례는 치르지 않은 상태이므로 처녀의 머리모양인 생머리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생머리는 단순히 처녀의 머리모양이라기 보다는 관례를 치르지 않은 여자의 머리모양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생머리’라는 명칭은 국말 낙선재 상공들이 실제 사용하던 명칭²⁶⁾인데 순화궁 관련 기록인 『당미』와 『절차』에는 ‘스양의’와 ‘스양의’로 기록되어 있으며 또 다른 기록에는 사양계²⁷⁾, 스양머리(사양머리)²⁸⁾, 새양머리²⁹⁾라고도 기록되어 있다. ‘생머리’는 땀은 머리를 상하로 몇 번 짚은 후 땀기 들여 묶은 머리인데 ‘생다리’라고 하는 가발[髻髮]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대체로 생머리는 궁 안의 어린 왕녀나 나인들의 머리모양으로 알려져 있으나³⁰⁾ 궁중은 물론, 사가(士家)의 여아들의 머리모양³¹⁾이기도 하였다. 궁중에서는 병오(1906) 가례 때 13세의 윤희후 역시 삼간택에 다홍치마와 초록견마기를 입고 생머리에 땀기를 하였다³²⁾고 하며 궁중 나인들 중에도 지밀(至密)과

침방(針房), 수방(繡房)에 소속된 관례 전 어린 궁녀들이 생머리를 하였다³³⁾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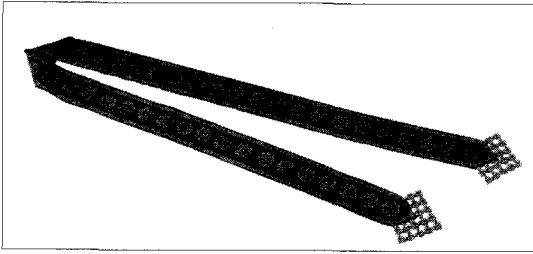
2) 생머리 장식물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당미』와 『절차』에는 ‘스양칠보(생칠보)’와 ‘ㄱㄹ마리칠보(가래머리칠보)’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1893년 의화궁과 김사준의 딸인 연안김씨와의 길례(吉禮) 기록인 ‘계스십월 길례시발고’³⁴⁾와 ‘길례시큰전의복발기(연대미상)’³⁵⁾처럼 생머리용과 가래머리용을 별도로 기록해 둔 것이 있어서 각각의 구성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생머리’에는 ‘스양달리[스양月乃]’³⁶⁾라고 하는 가발[月乃·月子·髻髮], 즉 ‘생다리<그림 1>’³⁷⁾ 외에 5



<그림 1> 생다리



〈그림 2〉 발진주 장식이 달린 생댕기(5×134.5cm)

종의 칠보가 더해졌다. 칠보족두리와 석옹황, 왜진주 귀고리[倭眞珠耳瑠], 진주장옥반자(眞珠粧玉班子), 그리고 ‘자적능금스양단기[紫綾金絲洋唐只]’라고 기록되어 있는 ‘생댕기’이다. 현존하는 왕실의 금박물린 자주색 생댕기 유물(그림 2)³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댕기의 양 끝에 진주 장식을 달기도 했는데 이를 ‘발진주[足眞珠]’³⁹⁾라고 하였다.

〈표 2〉 생칠보와 가래머리칠보

	『댕기』(1847) (생머리용+가래머리용)	『절차』(1847) (생머리용+가래머리용)	『길례시큰전의복발기』 (가래머리용)	『계스십월길례시발기』(1893) (생머리용)
1	칠보족두리	七寶簇頭里	칠보족두리	모단식공단족도리 (옥판·산호·진주규)
2	왜진주이당 1쌍	倭眞珠耳瑠 1雙	진주이당 1	산호이당 1쌍
3	도금니스장옥반자 1	鍍金泥絲粧玉班子 1	도금니스장옥반자 1쌍	-
4	진주장옥반자 1	眞珠粧玉班子 1	-	진주장옥원반자 1 (홍란2, 청란2, 진주5)
5	석옹황(대 1·소1)	大石雄黃 1 小石雄黃 1	-	석옹황 1
6	도금모란오두잠 1	鍍金牧丹烏頭簪 1	-	-
7	마란부전진주장옥장본 1 자적능금당기진주구	加卯付鈿眞珠粧玉長簪 1 紫綾金唐只眞珠具	가래머리부전진주장옥장본1 자적능금당기진주구	-
8	겉부전 진주장옥반자 1 자적단단기진주 니사장옥반자 2쌍	겉부전眞珠粧玉班子 1 紫的綴唐只 眞珠具 泥絲粧玉班子 2雙	겉부전진주장말화도화반자 자적항직금단기	-
9	자적능금스이단기 산호장옥판 5개 자적수화뿔스이단기 2쌍 자적수화뿔스이단기 2쌍	紫綾金絲耳唐只[珊瑚粧玉板 5箇] 紫的水禾細紗耳唐只 2雙 紫的水禾細髮唐只 2雙	자적금스이단기[미화판 5개]	-
10	자적장원뿔금스양단기 2개(중) 1 니사장옥반자발진주 구	紫綾金絲洋唐只 2內(중) 1 泥絲粧玉班子足眞珠具	-	자적능금스양단기 1
11	마라머리달리 1츠 털지 은털구(진칠합입)	加來末里月乃 1次 貼只 銀髻具(眞漆函入)	가래머리	-
12	스양달리1차(쥬칠소합입)	스양月乃1次(朱漆小函入)	-	-

『절초』 「국기」에 따르면 관례 전의 순화궁은 시증 조부(정조), 시증조모(정조비), 시조부(순조)의 기일에도 생머리에 민족두리와 자적금댕기, 석옹황을 댔다. 그리고 시부(익종)의 기일에는 석옹황 장식도 제거하고 금댕기 대신 금박 없는 자적항라 댕기와 자적주 댕기를 기일 전과 기일 당일로 구별하여 사용하였다.⁴⁰⁾

2. 가래머리[加來末里]

1) 가래머리의 형태와 용도

‘마라머리(가래머리)’는 순화궁의 가래 절차 중 세 차례에 걸쳐 사용되었다. 첫 번째는 삼간택 후 금수복자 원삼을 입고 별궁으로 갈 때의 머리모양이었다. 두 번째는 가래일에 노의 입고 입릴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현례 후 첫 문안에 ‘금수복자불(金壽福字

鬘)'에 가래머리를 하였다. 생머리와 마찬가지로, 관례 전의 머리모양이기는 하지만 생머리보다는 성장용 머리모양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06년 윤황후의 병오가례 「자장발기」에 '가라마리칠보'⁴¹⁾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세기 초까지도 왕실에서 가래머리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초 『규합총서(閩閩叢書)』에는 가래머리의 형태와 용도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옛날 경운(輕雲)이란 미인이 머리카락이 길어 탑 위에 서서 머리를 빗었는데 남은 두발을 좌우로 묶어 동심대(同心帶)를 만들어 두 어깨에 드리우고 주취(珠翠)를 꽂아 유소장(流蘇粧)이라 하니 그 무렵 부잣집 여자들이 덩달아 본 따서 푸른 실로 그 제도를 만들었다. 요즈음 신부의 가래머리가 필연 그 모양을 흉내 낸 것일 게다'⁴²⁾라고 하였다. '가라'는 '가래', 즉 '갈래'⁴³⁾를 의미하므로 가래머리란 머리카락을 좌우 두 갈래로 나누어 땀을 후 각각 둥글게 만들어 붙인 후 칠보 장식한 머리 형태로 추측된다.

좌우로 나뉘어 머리 뒤에 맺어진다는 점에서 낭자쌍چه나 별생⁴⁴⁾ 등과 의 연관성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별생'은 '별사양'과 같은 것으로, '혼례식 때 신부 큰 머리 밑에 쪽지는 머리로 머리털을 두 갈래로 땀아 두개로 둥글게 서리고 큰 봉잠(鳳簪)을 찌르는 것'⁴⁵⁾이라고 하니 용도나 형태면에서 가래머리와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 가래머리 역시 관례 전에 하는 머리모양으로 생머리의 일종이라고 볼 때 좌우로 '벌어진 생머리'라고 하여 '별생'이라는 말이 생겼을 것으로 짐작된다.

2) 가래머리 장식물

가래머리에도 가발과 칠보장식이 사용되었다. 1847년 기록에는 '가래머리 다리[加來末里 月乃]⁴⁶⁾가 기록되어 있으며 임오년(1882) 「삼간택시 빈궁마누라의 더블귀」에는 '가라치'⁴⁷⁾로, 「길네시큰전의북발귀(1893)」에는 '가라치'⁴⁸⁾로 기록되었는데 모두 가래머리용 가발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가라치'를 '가라치', 즉 반지 종류로 보는 견해⁴⁹⁾도 있으나 '치'는 궁중에서 상투 등, 머리 봉치로 사용되었던 용어이므로⁵⁰⁾ 이는 가래머리용 가발로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미』와 『절차』⁵¹⁾에는 가래머리용 칠보(표 1)가 '스양칠보'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가래머리를 관례 전 생머리의 일종으로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가래머리에는 첩지를 갖춘 가래머리용 가발 '가라치' 외에 당기(당기)를 곁들인 7종의 칠보, 즉 칠보족두리(七寶簇頭里), 왜진주 귀고리[倭眞珠耳瑠] 1쌍, 도금니사장옥반자(鍍金泥絲粧玉斑子) 1, 도금모란두잠[鍍金牡丹烏頭簪] 1, 진주 장식의 자적능금당기(紫的綾金唐只 眞珠具)를 갖춘 가른부전진주장옥장돈[加卵付眞珠粧玉長簪] 1개, 진주장식의 자적단당기(紫的緞唐只 眞珠具)와 니사장옥반자(泥絲粧玉斑子) 2쌍을 갖춘 걸부전진주장옥반자[걸부전眞珠粧玉斑子] 1개, 그리고 산호 장식의 옥판 5개[珊瑚粧玉板 5箇]가 장착된 자적능금사이댕기(紫的綾金絲耳唐只)·자적수화주사이댕기(紫的水禾紬紗耳唐只) 2쌍·자적수화주 끝댕기[紫的水禾紬紗唐只] 2쌍이 마련되었다.

가래머리칠보 중에는 '사이댕기'를 비롯하여 '가른부전비녀'와 '걸부전반자'가 특징적인 장식물이다. 현재로서는 '가른부전'과 '걸부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 수 없으나 한 연구에서 '가른부전'을 납작한 띠돈으로 추정한 바 있다.⁵²⁾ '가른'은 '가란(加卵)'으로 짐작된다. 가란은 끝이 뽕족한 여섯 장의 난초 꽃으로, 자손번창의 의미를 지녔으며 비녀의 도안으로도 자주 사용되었으니⁵³⁾ 가른부전[加卵付鈿] 비녀란 끝이 뽕족한 여섯 장의 화판(花瓣)을 지닌 난초 꽃 형태의 장식판을 붙인 비녀로 짐작해 볼 수 있다.

3. 조짐머리

1) 조짐머리의 형태와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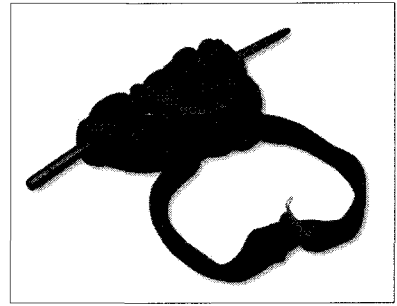
조짐머리는 정조대 이후 정착된 부인의 기본적인 머리모양인데 앞서 관례의 재가에 사용되었던 광식이라는 머리모양인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정조 때(1788)의 한글 기록인 「가채신금사목」에는 '본머리에 적은 첩지와 다리를 조금 넣어 두 가닥으로 땀고 끝을 땀기로 감아 올려 꺾어 쪼지게 한다'⁵⁴⁾라고 조짐머리를 맺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쪼지게' 한다는 말에서 '조지는 머리, 조진머리, 조짐머리, 쪼진 머리,



〈그림 3〉 18세기 후반 반가의 조짐머리와 족두리



〈그림 4〉 국말 상궁의 또야머리와 족두리



〈그림 5〉 조짐다리와 첩지(조짐머리)

족머리' 등의 명칭이 나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순화궁의 『당미』 기록에는 '조짐칠보'⁵⁵⁾와 '도짐칠보'⁵⁶⁾ 기록만 보이지만 『접초』 「스결」에 평상시 머리 모양으로 '조지는마리'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평상시 왕실 여성들이 조짐머리를 하였음을 분명하다. 국말의 '조짐머리'도 다리를 넣어 땅아 가지고 뒤에 소라껍질같이 붙이는 머리⁵⁷⁾라고 하니 머리 만드는 방식이나 형태는 정조대 이후의 '조짐머리'^{〈그림 3〉⁵⁸⁾}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짐머리와 유사한 또야머리^{〈그림 4〉}라는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고자 한다.

2) 조짐머리 장식물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순화궁 가례에는 '도짐칠보(조짐칠보)' 외에 옥관과 민칠보가 장식된 조지미족두리(조짐족두리)와 조지미다리(조짐다리), 은첩[銀籤·銀簪]을 갖춘 첩지(貼只)가 마련되었다. 석주선기념박물관에는 첩지와 조짐다리가 결합된 가발 조짐머리^{〈그림 5〉⁵⁹⁾}가 소장되어 있다.

1848년 무신년 『진찬의궤(進饌儀軌)』에도 선유락동기(童妓)의 첩지[接只]의 수식물로 '은와잠(銀蛙簪)⁶⁰⁾, 즉 은제 '개구리 비녀'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당시의 첩지는 봉이나 개구리 등이 장식된 비

녀형 장식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본머리에 더해지는 작은 규모의 가발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윤봉구(尹鳳九, 1681-1767)의 『병계집(屏溪集)』에도 첩지[疊紙]는 작은 모단(冒緞)을 사용하여 양쪽으로 편발(編髮)을 만든 것⁶¹⁾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순화궁의 소형 가발인 첩지에 갖추어진 '은첩' 역시 첩지의 장식물인 '은와잠'과 같은 비녀 종류라고 할 수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에는 소장되어 있는 영왕비의 '은봉첩지'라고 명명되어 있는 유물⁶²⁾처럼 순화궁의 은첩 역시 봉(鳳) 장식이 있는 비녀였을 가능성이 크다.

조짐칠보는 18종으로 다른 칠보에 비해 양이 많은 편인데 칠보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조짐머리가 평소 머리모양이었기 때문에 계절이나 상황에 따라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양의 칠보가 준비되었을 것이다. 순화궁의 「스결」에는 계절별로 사용 가능한 비녀와 반자가 제시되어 있다. 겨울용(10월-정월)으로는 도금용잠과 니사장 옥반자를 사용하였으며 춘추용(2월-4월, 8월 중순-9월말)으로는 은모란잠과 매죽잠, 니사장 떨철반자를, 그리고 여름용(5월부터-8월 중순)으로는 민옥잠과 홍란장 옥반자 등을 사용하였다.

<표 4> 순화궁의 조짐칠보

	『당미』(장서각) 조짐칠보	『절차』(규장각) 도검七寶	『정미』(장서각) 도검칠보
1	도금니스장옥가란화잠 1	鍍金泥絲粧玉加卵花簪 1	도금이사당옥가란화잠 1
2	빅옥봉잠 1	白玉鳳簪 1	빅옥봉잠 1
3	빅옥미화잠 1	白玉梅花簪 1	빅옥미화잠 1
4	산호잠 1	珊瑚簪 1	산호잠 1
5	도금농잠 1	鍍金龍簪 1	도금용잠 1
6	도금쌍봉잠 1	鍍金雙鳳簪 1	도금쌍봉잠 1
7	파란미죽잠 1 *	玻璃梅竹簪 1	파란미죽잠 1
8	파란반죽잠 1 *	玻璃斑竹簪 1	파란반죽잠 1
9	도금모란오두잠 1	鍍金牡丹烏頭簪 1	도금목단오두잠 1
10	도금오두잠 1	鍍金烏頭簪 1	도금오두잠 1
11	빅옥소미화잠 1	白玉小梅花簪 1	빅옥소미화잠 1
12	산호잠 1	珊瑚簪 1	산호잠 1
13	도금목련잠 1	鍍金木蓮簪 1	도금목련잠 1
14	도금모란오두잠 1	鍍金牡丹烏頭簪 1	도금목단오두잠 1
15	파란미죽잠 1	玻璃梅竹簪 1	파란미죽잠 1
16	대석옹황 1	大石雄黃 1	대석옹황 1
17	도금니스장옥반즈 1	鍍金泥絲粧玉斑子 1	도금이사당옥반즈 1
18	도금장접반즈 1 (이상흑변주칠케입)	鍍金粧蝶斑子 1 (以上黑邊朱漆積入)	도금당접반즈 1 (이상흑변주칠케입)
19	조지미죽두리 2 (옥판, 뽕칠보)	조지미죽두리 2 (玉板, 純七寶)	조지미죽두리 2 (옥판, 순칠보)
20	첩지 2(은첩 구),	첩지 2(銀簪 具),	첩지 1(은첩 구),
21	조지미둘리 2차(진칠케입)	조지미월 2次(眞漆積入)	조지미월너 2차(진칠케입)

4. 큰머리[大頭里·大末里]

1) 큰머리의 용도와 형태

순화궁의 관례에서 삼가(三加)의 원삼용 머리로서 큰머리가 사용되었는데 큰머리를 뜻하는 ‘큰마리’는 한자로 ‘大頭里’ 또는 ‘大末里’로 기록되어 있다. 『당미』기록을 볼 때, 큰머리는 에우미 죽두리(簇頭里)와 에우미 다리[月乃]를 더하고 다시 큰머리[大末里]하나와 큰머리칠보[大末里七寶]를 더하는, 복잡하고 규모가 큰 머리모양이다.⁶³⁾

『접초』 「스절」에는 큰머리가 명절을 맞아 옷전에 인사드릴 때 당저고리 차림에 하는 머리모양으로 명시되어 있다. 대전(大殿)의 탄일과 설날 문안에는 ‘초록적금당저고리’에 세줄 노리개를 차고 ‘스란치마’와 ‘스란 옷치마’를 입고 진주낭자를 찻으며 큰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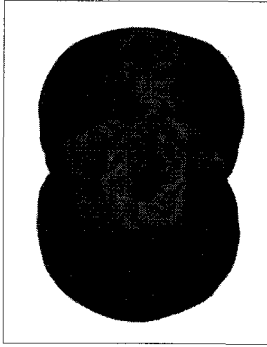
에 띠그지를 포함한 칠보장식을 하였다. 동지 문안에는 초록금수복자당저고리에 세줄 노리개를 차고 대란치마와 비단 옷치마에 큰머리칠보로 단장하였다.⁶⁴⁾ 이처럼 ‘큰머리’는 왕실 여성의 관례 시 삼가(三加)의 원삼 차림에 사용되었으며 궁중 명절에 옷전에 문안드릴 때 당의 차림에 사용되었던 소규모 의식용 머리모양임을 알 수 있다.

2) 큰머리 장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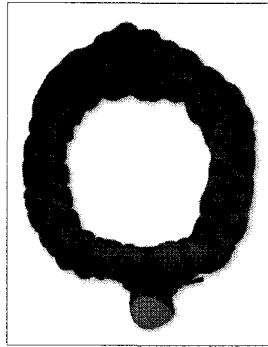
(1) 어염죽두리와 어염다리

‘어염머리’는 ‘어염미(於汝美)⁶⁵⁾, ‘염이(炎伊)⁶⁶⁾, 어우미(於汚味), 어잇머리⁶⁷⁾로도 기록되어 있는데 ‘어염’은 ‘두른다’는 의미의 우리말⁶⁸⁾이므로 그 머리의 형태를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당미』에 따르면 ‘에우미죽두리(어염죽두리)<그림



〈그림 6〉 어염족두리



〈그림 7〉 어염다리



〈그림 8〉 윤황후의 어머머리 모습(1920년대)

6>69)'와 〈그림 7>⁷⁰⁾과 같은 '에우미다리(어염다리)'⁷¹⁾가 큰머리의 부속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머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받침머리로 또야머리를 만들었다. 또야머리는 어머머리를 하기 위해서 뒷덜미 바로 위에 찌는 쪽머리로, 어머머리 밑받침을 또야머리 아래에 걸어 앞머리 중앙에 있는 어염족두리 위에 올려놓았다.⁷²⁾

국말에는 〈그림 4>⁷³⁾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왕비나 내인들 모두 평소 '또야머리(뺨머리)'⁷⁴⁾ 또는 '또야치(뺨머리)'⁷⁵⁾라고 하는 머리모양을 하였다. 고(故) 김명길 상궁의 설명에 따르면 윤황후의 경우, 순금으로 된 봉(鳳)을 얹은 첩지를 얹혀 첩지의 가발과 함께 쪽을 지는, 일명 '첩지머리'라고 하는 또야머리를 하였다⁷⁶⁾고 한다. 따라서 국말의 또야머리는 조짐머리와는 그 규모와 맺는 위치에서 구별되는 또다른 쪽머리로 이해된다. 비녀도 조짐머리용과 또야머리용이 구분되어 있다.⁷⁷⁾

'또야(뺨)'의 어원을 '옛날 두만강 북쪽과 그 근방에 살고 있던 미개한 사람들'⁷⁸⁾을 뜻하는 '되'라는 말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조 때 이미 오랑캐[胡虜·戎狄]를 '되놈[都爾老音]⁷⁹⁾이라고 하였으며 당시 쪽머리를 북계(北髻)⁸⁰⁾라고 하였으므로 북계를 '되머리'라고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점차 경음화되면서 '뺨머리', '또야머리'가 되었을 것이며 순화궁 시절에도 국말과 같은 '또야머리'가 있었을 것이나 가장 기본적인 것이어서 별도의 기록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야머리가 북계임을 방증하는 또 다른 자료는 1924년 일제 강점기 때 중추원에서 조사 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의 혼례에 사용된 머리모양 중에 대북계와 북계가 있었다⁸¹⁾고 하니 대북계는 가발을 사용한 조짐머리를 말하는 것이며 북계는 본발(本髮)로 만든 쪽머리를 뜻하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순화궁 관련기록인 『당미』나 『절차』에는 조짐칠보와 큰머리칠보, 수식칠보는 있지만 '에우미칠보'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여령이나 상궁들은 의례용으로 어머머리를 하였지만 왕실 여성들은 어머머리만을 사용하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18세기 초 이형상(李衡祥)의 『병와집(瓶窩集)』에서 외명부는 어머머리[於汝美]를 하고 내명부와 신부는 큰머리[舉頭美]를 한다⁸²⁾고 지적인 내용과 일치한다. 『절초』에도 큰머리칠보와 조짐머리, 조짐머리 장식물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어머머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은 당시 왕실 여성들이 어머머리만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단서이다. 〈그림 8>⁸³⁾처럼 왕실 여인들이 원삼에 어머머리를 하고 있는 모습은 제도가 간소화된 20세기 이후에 볼 수 있는 모습일 것이다.

(2) 큰머리(大末里)

순화궁의 『당미』에는 진칠함(眞漆函)에 넣어진 '큰마리'⁸⁴⁾가 있는데 『절차』에는 '大末里'로 기록되어 있다. '큰머리'는 어머머리에 올리는 가발(그림 9)⁸⁵⁾



<그림 9> 목제 큰머리



<그림 10> 큰머리를 한 상궁들

의 명칭인 동시에, 그 가발을 없애 완성된 머리모양의 명칭이기도 하다.

가발 큰머리는 재료에 의해 두 종류로 나뉜다. 목제(木製)로 만든 것과 모발(毛髮)로 만든 것이 그것이다. 목제 큰머리는 정조 3년(1779)년 2월에 머리카락으로 만들던 가발을 나무로 대체하라는 정조의 전교(傳敎)⁸⁶⁾에 의해 생겨난 새로운 제도이다. 한편 유품은 남아 있지 않지만 '다래로만 돌린 큰머리'가 있었다고 하는 윤백영 여사의 증언⁸⁷⁾처럼, 모발로 만든 큰머리도 있었다.

20세기에 상궁들<그림 10>⁸⁸⁾은 목제 큰머리를 사용하였지만⁸⁹⁾ 1922년 조현례(朝顯禮)를 치를 때 영왕비는 체발을 땅아 만든 것을 사용하였다.⁹⁰⁾ 삼축당(三祝堂, 1890-1972)의 증언에 따르면 창덕궁 대조전의 아리고(阿里庫) 새채방에서 다리를 곱게 땅은 후 밀초를 붙여 큰머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특히 모발로 만든 것은 비빈이나 공주 등이 사용하였고 목제로 만든 것은 그 외의 내명부가 사용하였다⁹¹⁾고 하니 신분에 따라 큰머리의 재료를 달리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큰머리칠보

순화궁의 큰머리칠보⁹²⁾[大末里七寶⁹³⁾]는 다음과 같이 모두 9점이었다.

'도금니스대봉쭈(鍍金泥絲大鳳簪), 도금니스장옥가란화쭈(鍍金泥絲粧玉加卵花簪), 도금니스대목련쭈(鍍

金泥絲大木蓮簪), 도금대룡쭈(鍍金大龍簪), 파란대미죽잠(玻璃大梅竹簪), 도금니스장옥선봉쭈[鍍金泥絲粧玉立鳳簪], 도금니스장옥립쭈(鍍金泥絲粧玉立簪), 도금니스장옥원쭈(鍍金泥絲粧玉圓簪), 도금니스연쭈(鍍金泥絲蓮簪)'

이상의 큰머리칠보 9점은 순서대로 5점의 대비녀와 4점의 반자잠으로 분류된 바 있다.⁹⁴⁾

순화궁의 「스절」에는 단일 문안 큰머리칠보로 '니사봉쭈그디'나 '옥모란잠쭈그디'를 꽃고 옥봉잠, 옥원잠, 니사연잠은 가운데 꽃는다고 한 기록이 보인다. 이 때 '쭈그디'는 '머구지'라는 것으로, 『당미』에 보이는 '도금니스대봉쭈'이나 '도금니스장옥가란화쭈'과 같은 것이다. 이는 상황에 따라 선별하여 찌르는 대잠(大簪), 즉 큰 비녀를 말한다. 김용숙은 일찍이 '머구지'가 가발 뒤에 꽃는 비녀라는 견해⁹⁵⁾를 제시한 바 있으나 복식학계에서는 여전히 목제 가발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다른 연구들⁹⁶⁾에서도 '머구지'가 '큰 비녀'라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5. 수식(首飾)

1) 수식의 형태와 용도

수식이란 조선시대의 비·빈이 관례 여부와는 관계없이 명복(命服)에 사용하던 최고의 의례용 머리



〈그림 11〉 대수



〈그림 12〉 대요반자

모양이다. 인조 23년(1623) 이후 적관(翟冠) 대신 체발로 수식을 만들어 사용⁹⁷⁾하면서 조선 후기의 수식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순화궁은 책빈일과 조현례, 동퇴연에서 패옥과 수정대, 청옥규를 갖춘 직금원삼, 혹은 직금홍장삼에 '수식'을 하였다. 관례 시 초가에도 '수식'을 하였다. 또한 1848년 무신년 진찬에서도 순화궁이 '명복(命服)' 차림에 '수식'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⁹⁸⁾

그러나 17세기 의례류에는 '수식'이 특정한 머리모양이 아니라 대수(大首)와 거두미(擧頭眉)를 지칭하는 이중적 의미의 어휘로 기록되어 있어서 주목된다. 1651년 책례(冊禮) 기록⁹⁹⁾이나 1694년 책례 기록¹⁰⁰⁾에는 수식이 2개 마련되었는데 하나가 '대수'이고 다른 하나는 '거두미'이다. 김지연의 연구(2008)에 따르면 이러한 양상은 정조 즉위년(1766)의 『정조효의후책례도감의궤(正祖孝懿后冊禮都監儀軌)』 이후의 의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¹⁰¹⁾고 한다.

이처럼 18세기 후기에 '수식'은 17세기의 '대수'를 지칭하는 좁은 의미의 단어로 변화되었다. 1906년 윤황후의 가례였던 병오 가례의 「자장발기」에 '수식칠보'¹⁰²⁾라는 기록을 볼 수 있으니 좁은 의미의 '수식'이 20세기 초까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1922년 영왕비의 적의용 체발 유물에 이르러 비로소 '대수(大首)'〈그림 11〉¹⁰³⁾라는 명칭으로 회복되었다.

2) 수식의 장식물

순화궁의 수식은 조선 후기 성장에 사용되었던 머리모양으로 13종의 '수식칠보'¹⁰⁴⁾(首飾七寶)가 마련

되었다.

'도금후봉잠(鍍金後鳳簪) 2, 니사장옥립봉잠(泥絲粧玉立鳳簪) 1, 도금립봉잠(鍍金立鳳簪) 2, 섬옥장잠(攝玉粧簪) 1, 도금소룡잠(鍍金小龍簪) 2, 니사장옥원잠(泥絲粧玉圓簪) 2, 니사장옥접잠(泥絲粧玉接簪) 1, 도금장섬옥대요반자(鍍金粧攝玉帶腰斑子) 11, 도금진주동곳[鍍金眞珠童串] 1, 도금오두잠대중소(鍍金烏頭簪大中小) 6, 자적금(紫的金) 마리사기, 자적금뒤단기[紫的金後唐只](옥반자(玉斑子) 1쌍, 발진주[足眞珠]), 흑각잠대중소(黑角簪大中小) 10개'

수식칠보 외에 선다리[立月乃] 2쪽지[曲只], 봉다리[鳳月乃] 2쪽지, 면다리(綿月乃) 10쪽지, 낭자다리[琅子月乃] 2쪽지 등, 4종의 다리[月乃]와 칩지(貼只)가 준비되었다.¹⁰⁵⁾

'수식칠보'는 영왕비의 대수 유물과 상당 수 일치한다. 따라서 19세기의 '수식'은 20세기의 현존하는 영왕비의 대수 유물과 17세기의 대수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요반자'라는 것은 '마리삭 금당기'로 알려진 '대요(帶腰·臺腰)'에 사용된 장식판(그림 12)¹⁰⁶⁾인데 순화궁이 사용한 '도금장섬옥대요반자'라는 것은 조각한 옥판에 도금장식을 올린 것으로 영왕비의 유물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대요는 15세기에 이미 세자빈의 머리장식으로도 사용되고 있었으며¹⁰⁷⁾ 『악학궤범(樂學軌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7개 또는 9개의 반자가 장식되어 여기(女妓)의 머리장식으로도 사용되었다¹⁰⁸⁾. 후기 정조대에는 '대요반자(大維盤子)'로 기록되어 있는데

반가에서도 신분에 따라 1개에서 9개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¹⁰⁹)고 한다. 그러나 비·빈의 신분인 순화궁과 윤희후, 영왕비는 모두 최고의 수량인 11개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대요반자를 장식한 대요는 조선 전시대를 통해 꾸준히 사용되어 온 역사 깊은 의례용 머리장식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

IV. 맺음말

헌종(憲宗)과 순화궁(順和宮, ?-1907)의 가례(嘉禮) 내용을 기록한 『덩머리가례시일기』와 『정미피물가례일기』, 그리고 『憲宗妃慶嬪金氏順和宮嘉禮時節次』 등을 중심으로 19세기 궁중 왕실여성의 머리모양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양의’와 ‘스양의’, 사양계, 스양머리, 새양머리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었던 ‘생머리’는 순화궁 가례일 저녁에 금수복자 견마기와 대란치마 차림에 하였던 머리모양이었다. 생머리는 관례 전 여아들의 머리모양으로, 머리를 몇 번 상하로 접은 후 댕기 들어 묶은 머리인데 ‘스양들리(생다리)’라고 하는 가발을 섞어 만들기도 하였다. 생머리를 장식하는 ‘생칠보’로는 석웅황(石雄黃)과 칠보족두리(七寶簇頭里), 왜진주 귀고리[倭眞珠耳瑠], 진주장옥반자(眞珠粧玉斑子), 그리고 ‘니사옥반자(泥絲粧玉斑子)’와 ‘발진주[足眞珠]’ 장식을 한 ‘스양단기(紫的綾金絲洋唐只, 생댕기)’ 등, 5종의 장식품이 사용되었다.

둘째, 가래머리는 가례 절차 중 세 차례 사용되었던 머리모양으로 원삼, 노의, 당의 차림에 사용되었다. 순화궁이 삼간택을 마친 후 별궁으로 출궁할 때 금수복자 원삼 차림에, 그리고 가례 날에 노의(露衣)를 입고 입궁할 때, 조현례 후 ‘금수복자불(金壽福字黻)’로 첫 문안을 드릴 때 가래머리를 하였다. ‘갈래’를 의미하는 ‘가리’라는 어휘에서 명칭이 비롯된 것처럼, 가래머리란 머리카락을 좌우 두 갈래로 나누어 땅은 후 각각 둥글게 만들어 붙이고 칠보로 장식한 관례 전의 성장용 머리모양이었다. 은잠[銀簪·銀簪] 장식의 첩지[貼只]를 갖춘 가래머리용 가발[加來末里月乃], 즉 ‘가라치’에 칠보족두리(七寶簇頭里)와 왜진주 귀고리[倭眞珠耳瑠], 도금니사장옥반자(鍍金泥

絲粧玉斑子), 도금모란오두잠[鍍金牧丹烏頭簪], 가른부전진주장옥장돈[加卵付紺眞珠粧玉長簪], 걸부전진주장옥반자(걸부전眞珠粧玉斑子), 자적능금사이댕기(紫的綾金絲耳唐只) 등 7종의 장식품이 사용되었다. 특히 ‘사이댕기’와 더불어 ‘가른부전비녀’와 ‘걸부전반자’ 등은 가래머리의 특징적인 장식품이었다.

셋째, 영·정조대의 가체금지 이후 부인들의 기본머리가 된 조짐머리는 순화궁의 관례 절차 중 재가에 사용되었던 ‘광식’이라는 머리모양임을 알 수 있었다. 순화궁 가례에는 ‘조짐칠보’ 18종과 조짐족두리, 조짐다리, 은첩(銀簪) 또는 은잠(銀簪)이라고 하는 비녀형의 장식품을 갖춘 첩지가 마련되었다. 은첩이나 은잠의 머리 부분에 봉이나 개구리 등이 장식되었다. 그리고 조짐머리는 궁중에서의 평상시 머리모양이었으므로 계절과 취향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양의 조짐칠보가 준비되는 것이 특징이었다.

넷째, 큰머리[大頭里·大末里]는 가례 절차 중 관례의 삼가(三加) 때 원삼 차림에 하였던 머리모양이지만 평상시에는 대전(大殿)의 탄일이나 정조(正朝), 동지와 정월 보름 문안과 같은 명절에 당의 차림에 사용되었다. 조짐머리보다는 작은 규모의 ‘또야머리’에 ‘에우미족두리(어염족두리)’와 ‘에우미다리(어염다리)’가 더해지고 다시 ‘큰머리’라고 하는 가발 또는 목제 머리틀에 큰머리칠보가 수반되는 복합적인 머리모양이었다. 순화궁을 포함한 왕실 여성들은 어여머리를 단독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큰머리의 부속품으로만 사용하였다. 그리고 ‘큰머리’라고 하는 독특한 머리틀은 정조대 이후 모발과 나무로 제작되어 비빈은 ‘모발 큰머리’를, 그 이하는 ‘목제 큰머리’를 사용하였다. 그 외에 순화궁의 큰머리칠보로 모두 9종이 마련되었는데 특히 이 때 사용된 ‘띠구지’라는 것은 목제 머리틀이 아니라 큰머리에 사용된 큰 비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최고의 성장용 머리모양인 수식(首飾)은 책빈일과 조현례, 동뢰연에서 직금원삼이나 직금홍장삼에 사용된 머리모양이다. 수식은 관례 전후를 구별하여 사용되던 다른 머리모양과는 달리, 유일하게 관례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비·빈의 자격만으로 허용되었던 특별한 것이었다. 수식은 인조 23년(1623) 이

후 적관(翟冠) 대신 채발로 만들어 사용하면서 정착된 것인데 17세기의 '수식'은 대수(大首)와 거두미(擧頭眉)를 지칭하는 이중적 의미의 어휘이었으나 18세기 이후 20세기 초 윤황후의 가례까지는 17세기의 '대수'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머리모양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1922년에 사용된 영왕비의 유물에 이르러 비로소 '대수'의 명칭이 회복되었다. 수식의 장식물로는 '수식칠보(首飾七寶)' 13종의외에 4종의 다리와 침지가 마련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19세기 조선시대 왕실 복식문화를 이해하는 자료로는 물론, 역사물 드라마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왕실 여성의 복식을 고증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설로 남겨진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 이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를 통해 보완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英祖實錄 卷87 32年 1月 甲申.
- 2) 英祖實錄 卷102 39年 11月 壬戌.
- 3) 正祖實錄 卷26 12年 10月 辛卯.
- 4) 金用淑 (1987). 朝鮮朝 宮中風俗 研究. 一志社, pp. 429-430.
- 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4b). 古文書集成 十三, pp. 627-717.
- 6) 憲宗廢嬪金氏順和宮嘉禮時節次 (1847, 규장각 소장). 자료에 도움을 주신 이명은 선생에게 감사를 포함한다.
- 7) 황문환 (2007). 『덩미가례시일기 정미가례시일기(丁未嘉禮時日記)』의 書誌와 異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한글 필사본 <덩미가례시일기>의 주해(註解) 및 연구 1, p. 1.
- 8) 金用淑 (1987). 앞의 책, p. 283. 이하 「스결」 혹은 「국곡」로 표기하고자 함.
- 9)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4b). 앞의 책, p. 627.
- 10) 憑虛閣李氏 (1809)(鄭良婉 譯註, 1975). 閨閣叢書, 寶晉齋, p. 237.
- 11) 國朝五禮儀 卷3 嘉禮 册妃儀, p. 99a.
- 12) 國朝五禮儀 卷3 嘉禮 納妃儀 命使奉迎, pp. 89-91.
- 13) 이명은 (2003). 『궁중볼거리』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77.
- 14) 자료검색일 2007. 12. 16, 자료출처 <http://dic.naver.com/>
- 15) 이옥 (2007). 경빈김씨(慶嬪金氏) 가례의 절차와 그 성격. 한국학중앙연구원, p. 34.
- 16) 國朝五禮儀 卷3 嘉禮 納妃儀, p. 92b.
- 17) 자료검색일 2007. 12. 16, 자료출처 <http://dic.naver.com/>
- 18) ①憲廟丁未嘉禮節次 (1847). p. 17. ②金用淑(1987). 앞의 책, p. 285.
- 19) 스결복식조장요람 (1847). p. 2.
- 20) 관례일은 기록마다 차이를 보인다. 『덩미』에는 11월 17일, 『정미』에는 11월 26일, 『절차』에는 11월 17일과 11월 26일로 기록되어 있다.
- 2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4a). 古文書集成 12, p. 245.
- 22) 부인의 낭자두(娘子頭)와 미혼녀의 낭자머리[娘子雙髻]는 별개의 머리모양이다.
- 23) 朴珪壽 (1832). 居家雜服攷 卷2 內服, p. 9.
- 2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4b). 앞의 책, pp. 642-645.
- 25) 위의 책, pp. 641-642.
- 26) ①金用淑 (1987). 앞의 책, p. 304. ②金命吉 (1977). 樂善齋 周邊. 中央日報社, p. 71.
- 27) 正祖實錄 卷26 12年 10月 辛卯.
- 28) 손미경 (2004). 한국여인의 髮자취. 이환, p. 261.
- 29) 石宙善 (1980). 韓國服飾史. 寶晉齋, p. 257.
- 30) 경운박물관 (2003). 근세복식과 우리문화, p. 145.
- 31) 正祖實錄 卷26 12年 10月 辛卯.
- 32) 金命吉 (1977). 앞의 책, p. 71.
- 33) 金用淑 (1987). 앞의 책, pp. 304-305.
- 3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4a). 앞의 책, p. 245. p. 255.
- 3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4b). 앞의 책, p. 454.
- 36) 위의 책, p. 641.
- 37)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2005). 名選 下, p. 48. '새양머리'
- 38) 경운박물관 (2003). 앞의 책, p. 145. '새양머리 땡기'
- 39)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4b). 앞의 책, p. 680.
- 40) 金用淑 (1987). 앞의 책, pp. 297-301.
- 4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4b). 앞의 책, p.485.
- 42) 憑虛閣李氏 (1809). 앞의 책, p. 237.
- 43) 南廣祐 編著 (1997). 敎學 古語辭典. 敎學社, p. 7.
- 44) 손미경 (2004). 앞의 책, p. 339.
- 45) 신기철 · 신용철 (1984). 새 우리말 큰사전 상, p. 1419.
- 4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4b). 앞의 책, p. 641: 憲宗妃慶嬪金氏順和宮嘉禮時節次 (1847), p. 35.
- 47)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4a). 앞의 책, p. 15.
- 48)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4b). 앞의 책, p. 454.
- 49) 金用淑 (1987). 앞의 책, p. 324.
- 50) 위의 책, p. 162.
- 5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4b). 앞의 책, pp. 640-641, p. 679.
- 52) 박혜진 (2005). 조선시대 후기 궁중패물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9.
- 53) 오선희 (2008). 조선시대 여자비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80.
- 54) 손미경 (2004). 앞의 책, p. 261.
- 5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4b). 앞의 책, p. 642.
- 56) 위의 책, pp. 680-681.
- 57) 金命吉 (1977). 앞의 책, p. 103.
- 58) 국립중앙박물관 (2002). 풍속화, p. 92.
- 59)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2005). 앞의 책, p. 49.
- 60) 강민정 (2006). 朝鮮時代 宮中로차에 나타난 童妓服飾

-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6.
- 61) 尹鳳九 (1802). 屏溪集. 卷14書 與權亨叔. 韓國文集叢刊 卷203, p. 307c.
- 62) 金英淑 (2002). 朝鮮朝後期 宮中服飾. 辛酉, p. 186.
- 6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앞의 책, p. 645.
- 64) 스컬복식주요요람 (1847), p. 2.
- 65) 李衡祥. 瓶窩集 卷5, p. 18.
- 66) 朴桂壽 (1832). 앞의 책, p. 17a.
- 67) 金用淑 (1987). 앞의 책, p. 175.
- 68) 李肯翊. 五洲衍文長箋散稿 東國婦女首飾辨證說.
- 69)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2005). 앞의 책, p. 34.
- 70) 위의 책, p. 47.
- 71) 憲宗妃慶嬪金氏順和宮嘉禮時節次 (1847), p. 47.
- 72) 金英淑 編著 (1998).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p. 143 .
- 73) 金用淑 (1987). 앞의 책, 圖 46.
- 74) 위의 책, p. 306.
- 75) 金命吉 (1977). 앞의 책, p. 120.
- 76) 위의 책, p. 115.
- 77) 金英淑 (2002). 앞의 책, p. 206. '조짐비녀'와 '또야치 비녀'가 별개로 제시되어 있다.
- 78) 신기철, 신용철 (1984). 앞의 책, p. 934.
- 79) 박지원 (1780), 리상호 옮김 (2004). 열하일기 上, 보리, p. 103, p. 571.
- 80)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61 齋業記 8 女服從華制.
- 81) 金知娟 (2008). 朝鮮時代 女性 禮冠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19.
- 82) 李衡祥. 앞의 책, p. 18a.
- 83) 金命吉 (1977). 앞의 책, p. 38.
- 8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4b). 앞의 책, p. 645
- 85)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2005). 앞의 책, p. 46.
- 86) 正祖實錄 卷7 3年 2月 庚辰.
- 87) 박혜진 (2005). 앞의 책, p. 52.
- 88) 金英淑 (2002). 앞의 책, p. 53.
- 89) 金用淑 (1987). 앞의 책, p. 72.
- 90) 金知娟 (2008). 앞의 책, p. 77.
- 91) 金用淑 (1987). 앞의 책, pp. 307-308.
- 9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4b). 앞의 책, p. 642.
- 93) 憲宗妃慶嬪金氏順和宮嘉禮時節次 (1847), pp. 38-39.
- 94) 박혜진 (2005). 앞의 책, p. 53.
- 95) 金用淑 (1987). 앞의 책, p. 308.
- 96) 오선희 (2008). 앞의 책, p. 6; 金知娟 (2008). 앞의 책, p. 83.
- 97) 仁祖實錄 卷46 23年 7月 乙卯.
- 98) 憲宗戊申進儀儀軌 (1848). 卷1 儀註 p. 27.
- 99) 中宮殿册禮都監儀軌 (1651), p. 27.
- 100) 仁顯王后册禮都監儀軌 (1694), p. 72
- 101) 金知娟 (2008). 앞의 책, p. 67.
- 10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4b). 앞의 책, p. 485.
- 103) 金英淑 (2002). 앞의 책, p. 43.
- 104) ①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4b). 앞의 책, p. 641. ② 憲宗慶嬪金氏順和宮嘉禮時節次 (1847), p. 36.
- 10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4b). 앞의 책, p. 642.
- 106) 金英淑 (2002). 앞의 책, p. 70.
- 107) 世祖實錄 卷20 6年 4月 乙卯.
- 108) 樂學軌範 卷9, p. 18b.
- 109) 正祖實錄 卷26 12 10月 辛卯.